

“10일간 추석연휴 중소기업을 살려라”

공공조달 납품기한 연휴 이후로 연장·특별자금 27조원 지원 4대보험 납부 12일로 연장·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행정지도

연휴기간 이어지는 기나긴 추석 연휴가 다가왔지만, 중소기업 사장들과 직원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기업 대표들은 납품 기일 맞추기가 힘들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걱정되고 근로자들도 연휴 중간에 출근해야 하는 ‘푹당푹당 근무’에 상대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 9월 11일자 1·3면 보도>

17일 정부와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대책을 강구한다는 최장연휴기간 이어지는 이번 추석연휴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자금난을 가중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한 대표는 “매출 감소·납품 기일 맞추기 등과 모처럼의 긴 연휴를 즐기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추석 연휴가 답답하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대기업 하청과 해외수출을 주로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품 기일 맞추기가 힘들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걱정이다. 제때 납품하려면 연휴 근무 직원들에게는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줘야하는데 이 자금마련도 문제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연휴기간 이어질 긴 추석 연휴 때 자금 사정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조달 곤란 원인(복수

응답)은 ‘매출 감소’(69.1%)가 가장 많았고, 연휴 때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27.1%였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나긴 연휴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한다.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윤모(35)씨는 추석 연휴 때 10월 4·5·6일에 대기해야 해 아무 데도 가지 못한다.

그는 “납품한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이 수리를 맡기는 데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없다”며 “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공장을 비울 수도 없어 긴 여행은 가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명절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공조달의 경우 연휴 이후인 16일까지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대기업에도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자금 곤란을 완화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등 27조원, 소상공인에게 1조6000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0일이 기한인 4대 사회보험 납부기한도 다음 달 12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해 중소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현금 지급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지역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긴 휴무를 맞아 생산감소가 불가피한만큼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보험 납부 기간 연장 등이 전체에 빠진 기업의 경기활성화와 손실 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세관 추석연휴 10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광주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추석명절 10일간의 장기연휴로 인한 수출입 업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추석 연휴기간 중 수출화물 미션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수출기업에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18일부터 29일까지 환급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하여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6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13·14일 이틀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2017 광주우수상품박람회’가 열렸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제공>

2017 광주우수상품박람회 성료

중기 판로확보와 고용창출 등 ‘기회의 장’

광주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판로확보와 고용창출 등 기회의 장을 제공한 박람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원장 신현구)은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한 자리에 모인 ‘2017 광주우수상품박람회’가 광산구 하남산로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3~14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이 최초로 개최한 행사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와 유통상담회, 미니취업박람회, 전문가 초청강연회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원을 통합해 개최했다.

매일 행사인 우수제품 전시회에는 (주)골프스토리 등 15개사가 참여해 지역특화상품 전시와 현장 판매를 진행했다.

또 박람회 기간 전국 48개 기업이 참여하는 MD유통상담도 진행, 수백여 건의 상담을 통해 신규판로 창출과 제품 홍보

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지역 취업난 해소를 위한 미니취업 박람회도 열려, 20여 명이 채용을 예정하는 성과를 냈다. 박람회 기간 광주 일자리종합센터 등 4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 행사에는 구직자 200여명이 참가했으며 30여명이 취업 컨설팅을 받았다.

신현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유통상담회, 미니취업박람회,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통합 개최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유상증자 먼저냐 중국법인 매각이 먼저냐 금호타이어 채권단 고민

유상증자 선행 땀 ‘알박기’ 미루면 유동성 문제 우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자구계획안의 두 축인 유상증자와 중국법인 지분 매각의 순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17일 채권단과 업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측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에서 올해 말까지 유상증자를 해 자본을 보충하고 내년 3월 말까지 중국법인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박 회장이 유상증자로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법인의 지분 매각에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자구안대로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지분 20%를 확보해 사실상 금호타이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박 회장의 유상증자를 허용하면 채권단으로서 는 경영진 해임이라는 확실한 견제수단을 잃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유상증자를 중국 사업장을 정리한 후로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유동성 문제가 대두한다.

중국법인의 지분을 팔려면 실사 작업 등 기본적으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어 자구안에 제시된 일정처럼 5~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채권단인 제3자든 외부의 ‘수혈’이 없으면 금호타이어는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박 회장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유상증자와 중국법인의 지분 매각에 실패하

면 금호타이어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간 불신의 골이 깊어 이런 약속이 채권단에 얼마나 호소력이 있을지 미지수다.

채권단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먼저 하게 되면 결국 지분 ‘알박기’로 채권단이 박 회장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다”며 “유상증자를 뒤로 미룬다면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중국 사업장 정리의 실현 가능성도 채권단이 고심하는 부분이다. 중국 사업장이 진 빛이 금호타이어의 ‘약한 고리’다. 차입금은 현재 현지 외국계 은행에 3160억원, 채권단에 4000억원 남았다.

자구안에 따르면 박 회장은 중국의 공장 3곳과 상하이 판매법인, 베트남 공장 등을 보유한 홍콩법인을 중국과 베트남으로 인적분할하고서 중국법인의 지분 10%를 3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고민 지점은 이런 매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다. 빛이 7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을 누가 3000억원에 사고서 또 1000억원을 유상증자할 것인가.

채권단은 다음 주 중반 주주총회를 열어 금호타이어의 자구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구안이 승인되면 채권단 지분의 75% 이상 동의를 있어야 한다. 채권단 지분 구성상 우리는 행(33.7%)이나 산업은행(32.2%)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자구안은 부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금호타이어에 자구안 수정을 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자구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9월30일~10월9일 연휴간 휴장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출범 이후 최장 ‘타이거’인 연휴간 휴장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는 긴 휴장 뒤 흑시라도 거래량이 몰릴 때를 대비해 ‘연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연휴간 주식시장이 휴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스피가 출범한 1983년 1월5일 이후 증권 거래가 연휴 연속으로 쉬는 적은 지금까지 3차례뿐이었다. 앞서 두 번은 모두 1980년대 초 연말연시 때 기뻐했다.

당시 거래소가 연말 휴장 기간을 뒤 12월26일에 증시를 폐장했다. 사흘간 양력 설 연휴까지 겹치면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개천절·추석 연휴와 주말 사

이에 긴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2년 만의 최장 기간 휴장이라는 진기록이 쓰이게 됐다.

거래소는 기록적인 이번 연휴를 마치 고 주문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를 대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일일 주문량이 평소의 10배 가까이 급증해도 이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엑스처플러스(EXTURE+) 시스템을 2014년 구축해둔 상태다.

증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연휴기간에도 시스템은 계속 가동된다. 연휴 때 혹시 모를 이상 발생에 대비해 정보기술(IT) 관제센터에 전문가가 24시간 상주한다.

/연합뉴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미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